

몽골과 한국의 구비문학 속에 형상화된 영웅의 ‘준마’에 대한 비교 고찰

이 안 나(울란바타르대학교 교수, 몽골)

몽골에서는 고대로부터 자연 환경으로 인해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말의 비중이 적지 않았다. 드넓은 초원에서 말은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운송수단이 되었고, 전쟁 시에는 싸움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빠르게 달리는 속성과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성으로 말은 영웅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으면서 전투력의 상징적 동물로 인식되었고, 전쟁 시대를 거치면서 말은 더 큰 존송의 대상이 되어왔다. 말의 놀라운 질주 속력은 하늘을 나는 천마 관념을 낳게 했고, 말이 하늘에서 기원한 동물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몽골 문학 장르 가운데 말의 위상이 가장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영웅서사시에 등장하는 말은 때로 영웅보다 더 지혜로울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신을 하고, 하늘을 나는 등 여러 가지 마법적인 힘으로 영웅에게 닥친 위험을 극복하게 하고 주인공 영웅을 승리로 이끌어 이야기를 매듭짓게 한다.

몽골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기마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시대가 있었다.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몽골만큼 말 문화가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고대에는 영웅과 관련된 천마 관념이 있었고, 말과 관련된 다양한 의례들이 있었다. 또한 말은 농경사회의 대표적인 수신인 용과 결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용마 관념을 낳기도 했다.

생활 기반이 다른 두 나라이지만 고대인들의 생활상과 관습, 사유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구비문학 속에 영웅과 관련된 말의 형상성을 살펴봄으로써 한·몽 두 나라 민족의 말에 대한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천상적 존재 - 천마

전통적으로 몽골이나 한국에서 말은 하늘을 나는 동물이라는 관념이 있어 왔다. 몽골의 <말의 기원>이라는 신화를 보면 말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하늘 기원의 동물로 묘사되고 있는데, <말>이라는 설화에도 이러한 관념이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느 날 마유주의 맛을 본 수도승이 사람들에게 나무에 올라가미를 묶어 놓으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올라가미를 준비해 놓고 있자 안개가 끼면서 하늘에서 많은 말들이 내려온다.(23.85) 오이라드 설화인 <말은 왜 날 수 없게 되었나>에서는 옛날에 말은 땅으로 다니지 않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개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는 영웅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든 영생수를 하늘의 백마가 마셔버렸기 때문에 화가 난 왕이 모든 말들의 날개를 잘라버려 하늘을 날 수 없게 되었다(3.89~90)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한다.

한국에서도 백마는 천상의 동물로 적지 않게 등장한다. <나무꾼과 선녀>의 한 이본에는 아이를 낳고 살던 선녀가 선녀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자 나무꾼은 박씨를 심어 하늘까지 자란 박 넝쿨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천왕은 나무꾼을 여러 가지로 시험할 때 그 중 하나는 쏜 화살을 찾아오라는 것이었다. 이때 선녀는 백마를 주며 이 말을 타고 가면 화살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알려준다. 나무꾼을 태운 백마는 떨어진 화살을 찾으러 지상에 내려온다.(38.49) 또 다른 이본에는 하늘에 올라간 나무꾼이 지상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 선녀가 내준 천마를 타고 지상으로 하강하였다가 금기를 어겨 죽거나 수탉으로 환생하는 이야기가 있다.(31. 786) <나무꾼과 선녀> 설화의 이본에 나타나는 말의 종류로는 용마, 백마, 비루먹은 말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모두 천마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32. 193) 여기서 주인공 나무꾼은 범상한 존재라기보다 영웅적 인물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나무꾼의 탈것인 백마는 주로 하늘과 땅을 오가는 천상의 동물임을 보여준다.

몽골의 신화 가운데 하늘에서 기원한 말은 주인을 따라 다시 하늘로 올라가 천체가 되기도 한다. 신화적 영웅 후호대 메르겐은 솜같이 희디흰 백마를 타고 사냥을 하다가 세 마리 암사슴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다(25.49)는 천체 기원신화가 있다.

고대 몽골에서 천손이라 인식되었던 왕손들은 백마를 타고 흰옷을 입었으며, 무당들도 역시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다녔다고 하는데, 어떤 무당들은 거울 속에 '백마'를 본다고 한다. 백마는 무당을 하늘로 날게 하고, 신에게 데려다 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부랴트 무당은 강신을 위해 말머리를 새긴 지팡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14. 179), 이 지팡이는 말을 상징한다. 13 세기 테무진이 대왕이 될 것을 예언한 테브 텡게르인 허허추는 백마를 타고 하늘을 오르내리곤 했다고 한다.(40.285) 이처럼 백마는 천상에서의 탈것으로 주로 신적 존재 또는 천손인 왕 내지 영웅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몽골의 영웅서사시나 신이담에서도 말들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의 속성을 지닌 동물로 등장하는데, 이러한 말들은 대개 백색 혹은 은회색 말로 묘사된다. 차스 치헤르의 은회색 말(7.105), <노인 별득귀 버릴저이>의 은회색 말(25.81)은 모두 하늘을 나는 말들이다. 종종 다른 색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계세르>의 지혜로운 밤색 말(6.88), 때로는 빨과 날개가 달린 푸른색 말(19.118)들이 나타난다.

몽골의 서사시의 주인공은 때로 천상에서 내려오며, 그때 말도 주인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계세르를 땅으로 내려 보낼 때 천상의 9 마리 말 가운데 푸른색 말을 주어 내려가게 한다.(17.30)

이스. 돌람은 하늘을 나는 말이 백색 계열의 은회색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은 새의 털색(9.80)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몽골 문학 속에서 말은 새에 비유되어 "날아다니는 새"(4.525)로 형상화하거나 명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늘을 나는 초능력적인 말도 새의 털색과 마찬가지로 은회색으로 형상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색 상징 면에서 볼 때 새와의 관련성보다는 전통적으로 백색이나 은회색은 태양빛과 관련하여 태양신앙을 흡수한 상징적 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말은 태양[午] 즉, 양기 동물이므로 백색 상징성과 결합하여 '신성함'과 '완전한 능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나 몽골의 고대에 왕족의 무덤에 말을 순장했던 것은 이를 반영하며, 신라시대 천마총의 말다래에 그려진 천마도 역시 이와 관련된다 할 수 있다.

몽골과 한국의 구비문학에 나타나는 백마를 비롯한 천마는 이처럼 주로 왕이나 장수 즉 영웅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하늘을 나는 말에 대한 이해는 말이 신화시대 천상의 존재로써 신들의 탈것이라는 관념에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후에 왕이나 탁월한 능력을 지닌 영웅을 천손 또는 하늘이 점지한 특별한 존재로 관념하면서 천마를 영웅과 관련시키는 전통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2. 영웅 탄생과 말, 용마

한국의 구비문학에서는 말은 영웅 또는 장수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나타난다. 신라 시조왕 혁거세의 탄생담에도 말이 등장한다.

양산 밑에 나정 옆에 번개빛 같은 이상한 기운이 땅에 비치니 거기에 백마 한 마리가 꿰어 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곳을 찾아가 살펴보니 자주빛 알 한 개가 있는데, 말은 사람을 보고 길게 울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 알을 쪼개니 모양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동자가 나왔다.(36.66)

위의 신화에서 영웅은 일반적으로 하늘이 점지한 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천마를 타고 지상에 내려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 보편적으로 퍼져있는 <아기장수 전설>에서도 말이 장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나타난다. 전설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전에 한 노파가 바닷가를 다녀오는데 주변의 동굴 안에서 짐승 울음소리가 났다. 이상하게 생각해 동굴 속을 들여다보니 한 마리 말이 울고 있다가 노파의 인기척을 알아차리고 동굴 속으로 도망쳐 버린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후 동굴 근처에 있는 등근 돌이 하루하루 자라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물 속에 잠겨 있었는데 차차 커지더니 물 위로 나오게 되었다.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 관가에까지 알려지는데, 당시 고을 원님은 못된 사람이라 이 돌이 큰 장수가 태어날 징조임을 예감하고 즉시 깨버리라고 명령한다. 돌을 깨니 그 속에서 날개가 달린 아기가 나왔다. 그러자 원님은 아기를 죽여 버린다.

아기가 죽은 후 동굴 속에서 말이 뛰쳐나와 발광을 하다가 돌에 머리를 부딪쳐 죽고 만다. 이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말이었는데 장차 나라를 다스릴 아기장수가 죽자 자기도 따라 죽었던 것이다. 그 후부터 이 동굴을 ‘말구멍’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동굴은 가장 높은 산 위에 난 구멍과 통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말이 그곳에서 자랄 수 있었다고 한다.(39.251) 이것은 고구려 시조 왕인 동명왕이 신계 알릴 것이 있으면 기린마(麒麟馬)를 타고 굴을 통해 하늘로 올라갔다(35.179)는 신화적 맥락과 유사하다.

위 설화에는 영웅이 바위에서 태어나는 점, 장수가 태어날 바위가 물 속에서 자라나는 점, 장차 장수가 될 아기가 날개를 가지고 태어난 점 등의 신화적 화소가 내포되어 있다. 말이 장수의 탈것으로 준비되어 하늘을 오르내린다는 것은 장수나 말 모두가 천상적 존재로 지상에 태어나도록 점지되었음을 의미하며, 말은 천상적 존재인 장수를 이 세상에 태우고 온 영웅의 탈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몽골에도 영웅은 돌에서 태어나며 영웅에게 항상 탁월한 능력을 지닌 말이 운명적인 동반자로 주어진다. 이는 한국의 아기장수 탄생 모티브와 매우 유사하다. 몽골의 고대 서사시 <장가르>의 한 이본에는 “수돌 아버지와 암돌 어머니에서 태어난 바양차강 바타르는 밤색 수말을 가지고 있다”(21. 199)라고 하여 주인공이 돌에서 태어나며 주인공에게는 준마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에링 쉐 향 하랑코이는 안장과 굴레를 채운 말과 함께 검은 돌을 부수고 나온다.”(4.109)라 하여 영웅은 말과 함께 태어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두 마리 얼룩말 이야기>에서 “두 마리 말은 하늘 아버지가 점지한 용감한 백색 암말에게서 태어났다”(10.101)고 나오는데 준마를 천신이 점지하여 지상에 내려 보낸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몽골에서도 영웅은 매우 특이한 탄생을 보여주며, 돌을 자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돌의 단단함과 불변성 이외에 고대 돌 신앙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기장수 전설에는 다양한 이본이 있는데, 고흥읍 서쪽 봉대산 외딴 곳의 박씨 부부의 옥동자 이야기에서는 어린 아이가 천장을 날며 좁쌀을 균줄로 만들어 진두지휘하며 싸우는데 그 모습을 본 부모와 문중 사람들은 나라의 역적이 나올 조짐이라 하여 아이의 팔을 자른다. 아이는 팔 없는 장사가 무슨 일을 하겠냐며 스스로 자결하고 만다. 그러자 봉대산에서 어린 장사를 기다리고 있던 백마는 울음소리를 내며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43.79~80)

한국의 금와왕 탄생담은 영웅의 탄생과 관련되어 말과 돌이 등장하는 특이한 예이다.

부루는 늙도록 아들이 없어서 하루는 산천에 제사를 지내어 후사를 구하였다. 이때 타고 가던 말이 곤연에 이르러 큰 돌을 보고 마주 대하며 눈물을 흘렸다. 왕이 이를 이상히 여겨 사람들을 시켜서 그 돌을 들추어내니 거기에 금빛 개구리 모양의 어린아이가 있었다. 왕이 기뻐하며 이는 하늘이 내게 아들을 주심이라 하고 그 아이를 거두어 기르고 이름을 금와라 하였다.(36.56)

위의 신화에 등장하는 말은 천마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지만 영웅 탄생을 알리는 예지자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아기장수 전설의 이본들에는 말보다 용마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한 이본을 예로 들어보면, 옛날에 한 평민이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는 아기를 낳았는데 부모는 어린 장사가 크면 나라의 역적이 된다 하여 아이를 돌로 눌러 죽인다. 그러자 집 근처 연못에서 용마가 나와 주인을 찾아 울며 헤매다가 용소에 빠져 죽는다(41. 282)는 비극적인 이야기이다.

이렇게 말과 용이 결합된 용마사상은 용을 숭상하는 동양 문화의 한 상상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용마 관념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며, 몽골 구비문학에서도 여러 가지 날개 달린 말들이 등장하는데, 몽골사전에서 이를 “용마”(20.140)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것은 몽골의 전통적인 이해라기보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용은 물과 천둥, 번개를 마음대로 부리는 수신으로 농경문화와 결부되어 나타난다. 이처럼 천기를 변화시키고 물 속, 지상, 천상을 오고 가는 용을 말과 결합시켜 영웅의 탈것이라는 가장 이상적인 동물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학자는 용은 남방문화적인 요소를, 말은 북방 문화적 요소를 가진 동물이며, 용마는 이 두 문화의 요소가 혼합된 것(33.306)이라 말하기도 한다.

한국에는 ‘용담’ 또는 ‘용마연’이라고 부르는 지명이 적지 않은데, 이러한 지명에는 모두 용이나 용마와 더불어 장사 혹은 장수에 관한 전설이 전한다. 용담이라는 부르는 연못의 한 전설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 경상도 봉덕동에 큰 못이 하나 있었는데, 이 못에 용마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동네 백 사람의 힘을 합한 만큼의 장사라 하여 백장사라는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그 못으로 가서 용마를 잡았다. 백장사는 용마를 소중히 잘 기르다가 용마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용마가 나온 못을 ‘용마연’이라 했다(34.66~67)는 전설이 전한다. 용마는 대개의 경우 장수 또는 장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장사(장수) 나면 용마 난다.”라는 옛말도 있다.

한국 고대문화에는 특정한 두 동물을 하나로 연결시켜 앞의 동물을 하나의 수식적 특성으로 삼는 단어가 종종 나타난다. 용마 이외에 아주 용감한 말을 일컬을 때 호마(虎馬), 신령한 말을 이르는 기린마(麒麟馬), 닭의 특성을 지닌 용을 계룡(鷄龍), 뱀과 거북이를 결합한 현무(玄武) 등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을 아우르는 동물들은 대개 신적인 특성을 지닌다.

장수와 준마는 모두가 평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초현실적인 탄생을 보여주며 대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로 인식했던 것은 탁월한 존재는 지상이 아닌 천상적 존재로 하늘의 점지로 태어난다는 고대인의 하늘 숭배사상을 드러내준다.

3. 화살보다 빨리 달리는 말

말의 본능적 특성은 달리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말의 쾌속 질주의 기동력은 전쟁의 승패와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화살이나 바람보다 빠른 말은 영웅이나 장수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서사시에 나타나는 ‘하늘을 나는 말’에 대한 관념은 구체적으로 몸속에 부레의 기능을 하는 공기 관을 가진 쾌속의 말에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 고대로부터 말을 천상의 동물로 인식했던 신화적 관념을 반영하기도 한다. <호오르가 생겨난 이야기>에서는 주인공 후허 남질의 준마 저능하르는 겨드랑이에 마법의 힘을 가진 날개를 가지고(25.168) 있었다고 묘사한 것은 실제적으로 몸에 공기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놀라운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말이었음을 말해준다.

한국에서도 예전에 무관들이 활쏘기, 말달리기 등으로 무술을 연마하였으며, 빨리 달리지 못하는 말은 싸움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빨리 달리는 말을 매우 선호했다. 이성계가 조선의 왕이 되기 전 무술을 연마하던 어느 날 말에게 “내가 이곳에서 연포정을

향해 활을 쏘 테니 네가 이 화살이 떨어지기 전에 그곳에 당도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네 목을 베겠다.”고 했다. 이성계가 활을 당김과 동시에 말은 힘껏 달려 목표점에 도착해 보니 이성계가 쏜 화살이 소나무에 박혀 있었다. 그는 말이 화살보다 늦게 도착했다고 말을 죽여 버리자 그가 쏜 화살이 날아왔다. 소나무에 박힌 화살은 그가 전날 쏜 화살이었다. 이성계는 준마를 죽인 것을 후회하고, 그 말을 물어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37.54) 전설의 주인공은 이본에 따라 이성계 외에 이몽학, 최영, 백제 장수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전설은 준마의 질주 속도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 영웅의 판단 착오로 인해 귀한 준마를 잃게 되는 불행한 사건을 보여준다.

보통 몽골 영웅 서사시에 나오는 말들은 구름 아래로 나무 우듬지 위로 달려가며, 한 해 거리를 한 달로, 달거리를 하루거리로 축지해 달려가 해가 솟는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몽골 서사시 <봄 에르텐>에서도 “봄 에르텐이 밤낮 3 일을 달려가 9 년의 먼 곳을 넘어왔다.”(13.40), “가지 있는 나무 위로, 구름이 있는 하늘 아래로, 매처럼 날듯이 달려갔다.”(14.201), “99 년 거리를 9 년으로 단축해 달려갔다.”(14.200)라는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모두 엄청나게 빠른 말의 속도를 형상화하는 문학적 표현들이다.

<장가르>에서는 “앞다리는 한나절거리, 뒷다리는 하루거리에 두고 뒷몸은 땅을 스치며 달려가고 가슴으로는 턱을 치며 가는데, 양쪽에서 세찬 소리를 내고 풀이 양쪽으로 갈라진다.”(11.43~44), “달려갔지만 달리는지 느끼지 못하고 날아갔지만 나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빠르게 달릴 때 안장 뒤에 앉아 황금 고삐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간다.”(11.45) “49 일 거리를 일주일 만에 달려갔다.”(11.116) 등 빨리 달리는 말에 대한 묘사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 몽골에서 말을 “기 같은 말” 또는 “바람 같은 말”이라고 이르는 것도 화살처럼 빠른 말에 대한 수식적 표현들인데,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몽골어 “히모리(хийморь)”는 “정기, 기백, 행운” 등의 전의된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된다. 몽골에서 말은 남자의 히모리(정기, 기백)을 복돋아주는 생명 약동의 원천으로 인식된다. 또한 “말이 있다”라는 뜻의 “모리테(морьтой)”라고 하면 ‘재수가 있다’, ‘운이 좋다’(24. 342)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4. 지혜로운 조력자, 예지자

몽골의 서사시의 말은 주인공보다 더 생각이 깊고, 지혜로울 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주인의 조언자가 되며 죽은 주인을 깨어나게 하고, 살리는 등 주인을 돕고 가호하는 수호자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만약 말이 주인의 조언자 혹은 동반자가 아니라면 몽골 서사시(26.64)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서사시에서 말은 주인을 보필하는 절대적 존재로 형상화된다. 이렇게 말은 서사시 영웅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인간의 말로 위기 상황을 일깨우거나, 그들에게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인간 주인공보다 부족하지 않은 또 하나의 영웅으로 등장한다.

몽골의 동물 문양에서도 말은 ‘생각’, ‘지성’을 상징하는(2.236) 동물로 표상되는 것을 보면 몽골에서는 예로부터 말을 사려 깊은 동물로 인식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몽골의 서사시에는 특히 이러한 말의 형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며,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주인과 대화를 하며 보필하는 의인화된 존재로 묘사된다. 한국의 경우 말을 의인화하여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인간의 말을 하며 주인공에게 닥친 위기를 타개해 주는 수호적인 존재로 묘사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말의 민첩성이 주인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 고대 왕들이 대개 사면들로 동물과의 영적 교통 내지는 교감이 이루어졌던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말이 영웅을 보필하는 예지적인 천상의 신적인 존재로 인식했던 고대 몽골인의 사유를 반영하기도 한다.

영웅서사시의 말들은 주인공이 목적지에 가는 도중 장애를 만나게 되면 거의 예외 없이 주인에게 조언을 하고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조력자들이다. <지웨르 왕의 아들 지웨르 미찌드>에서 주인이 아내 될 여인을 데리고 가던 중 앞에 독으로 출렁이는 바다가 나타나자 “여자를 진드기로 만들어 제 입에 물고 가겠어요. 주인님은 최대한 몸을 조아리세요.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달리겠어요.”(15.74)라고 하며 상황을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고 위기를 극복한다.

주인에게 위협이 닥칠 때도 이를 미리 알고 죽음의 위기로부터 주인을 구한다. <아나 메르겐 왕>에서 왕의 여동생이 반동인물인 바다아삼보 왕과 싸고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여동생이 하라는 대로 하자 말은 주인에게 닥친 위험한 상황을 사람의 말로 고한다. 말이 “당신은 얼굴에 털이 없는 인간의 자식이면서, 얼굴에 털이 있는 동물보다 못한 존재란 말입니까? 당신을 죽이려고 바다아삼보가 오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왕이 보니 정말 바다아삼보 왕이 자신을 해치려고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1.12)

<돌 같은 심장을 가진 소년 후베 보이다르>에서는 괴물이 자신의 주인을 잡아먹으려고 뒤에서 추격해 오는 것을 알고 다리가 묶인 채로 세 길 깊이의 구덩이를 파놓는다.(15.104)

또 주인이 상황 판단을 잘 못하거나 힘이 떨어져 패배를 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조언을 하거나 용기를 고무시키기도 한다. <알통 고르갈대>를 보면 알통 고르갈대가 적과 대결하기 위해 길을 떠날 때 그의 아내가 말의 안장 끈에 분홍색 윷도리를 끼워놓은 것을 발견하고 “불길한 징조의 기분 좋지 않은 노인의 옷”이라고 하며 버리려 하자 그의 은회색 말이 “먼 길을 가는 사람에게 부모님의 옷이 필요하다.”(15.42)고 조언한다. 그러자 고르갈대는 세계의 비석 가운데 돌에 옷을 묻어두고 길을 떠난다. 그 윷옷은 나중에 비데르 하르 노용이라는 반동인물의 저주로벼락을 내릴 때 주인공을 보호하여 죽음에서 건지는 마법의 물건이 된다.

이렇게 말은 주인에게 시시때때로 적절한 조언을 해 줌으로써 주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를 모면하게 해준다. 또 주인공 알통 고르갈대가 비데르 하르 노용의 사자(使者)인 검은 새를 쏘려다가 활과 화살이 부러져 울고 있자, 그의 말이 자신의 등가죽을 베어 활과 화살을 다시 만들게 한다. 그리고 땅에 한 번 구르자 다시 원래 모습으로 회복된다.(15.42)

<항 칭겔 바타르>에서는 체첵 올랑 바타르와 항 칭겔 바타르가 의형제를 맺고 가는 길 앞에 무언가가 나타나자 항 칭겔 바타르의 담황색 말이 그것이 무언지를 인간의 말로 주인에게 묻는다. 그러자 항 칭겔 바타르는 오히려 인간의 눈을 가진 자신은 모르니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자신의 말에게 되묻는다.(22. 83)

<세 살된 고능 올랑 바타르>에서도 주인은 적에게 화살을 겨누면서 자신의 말에게 언제 화살을 놓을 지를 묻고, 말은 적절한 때를 지적해 쏘라고 조언해준다.(25.169)

위의 다양한 예에서와 같이 서사시 영웅들은 자신의 준마와 대화를 나누며, 조언을 구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큰 명성을 얻는다. 이처럼 말을 현명하고 헌신적인 내조자로 묘사하는 전통은 몽골 서사시에 상당히 깊이 배어 있으며, 대부분의 영웅서사시에 이러한 탁월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삼국사기』에 대무신왕 3년 9월 “왕이 골구천에서 전렵을 하다가 신마(神馬)를 얻어 그 이름을 거루라 지었다”(28. 346)고 했으며, 5년 3월에 “(앞서 잃었던) 신마 거루가 부여마 100필을 거느리고 왔다”(28.348)는 기사가 나온다. 이 기사에서 신마는 자신의 주인 될 사람 앞에 나타나 주인을 돕는 영리한 말로 나타난다.

또 <내물이사금> 조에 “왕이 늘 타는 말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울었다”(28. 70)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말이 주인의 죽음을 예고하는 예지적인 존재임을 보여준다.

5. 훈계자

말은 주인을 돕고 조언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주인이 그릇된 행동을 할 경우 잘못을 깨우치고 나무라는 훈계자로 나타나기도 한다.

<에링 샌 헤르트 하르 후헨>에서는 주인공이 길을 가던 중 큰 장애물이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앉아서 잠이 든다. 한 번 잠들면 3 개월을 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깨어나지 않자 그의 말이 주인을 깨우기 위해 천 마리 용의 힘을 다해 시끄럽게 울고, 십만 마리 용의 힘을 다해 요란스럽게 투레질을 한다. 그래도 깨어나지 않자 홍수 같은 눈물을 흘려 귀로 떨어뜨려 주인을 잠에서 깨우는(15.130)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서 “훌륭한 대장부께서 원래 뜻하셨던 생각은 어찌 된 것입니까?”라고 하며 지체 없이 떠날 것을 종용한다.

<장가르>에서 헝거르가 적수인 탱게르 터어 부스와 싸울 때 열세에 몰리자 그의 말이 달려와 “당신은 쉬브쉴룩의 자손이 아십니까? 쉴테 잔등 왕비에게서 태어난 분이 아십니까? 전쟁터에서 장가르 왕의 보호막이 되지 않았습니까? 18 세에 사람이 되겠다고 나와서 단 한 사람에게 졌다는 오명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11.48)라고 나무라며 주인에게 필사의 힘을 다해 싸울 것을 고무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초능력적인 청각으로 수천 리 밖의 소리를 듣고 그것으로 주인의 과오를 깨닫게 하기도 한다. <장가르>에서는 훈드 가르테 사와르가 군주 장가르에게 불만을 품고 타지의 왕에게 투항하여 밤을 지내는데 무엇이 서쪽 게르 벽채를 비뚤다. 자신의 말 후렝 할증이라는 것을 알고 나가자 말이 이렇게 말한다. “장가르 왕께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네가 떠난 후 덕성 할강 왕이 7 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우리를 포위했다. 이럴 때 나의 훈드 가르테 사와르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술개가 아니더냐? 패배할 수 없는 용사로 태어나지 않았더냐?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고 나갔으니 어찌하면 좋을까.’하고 외치는 소리가 나더니, 다시 가는 소리로 세 번, 굽은 소리로 세 번 들렸습니다. 인간 매인 훈드 가르테 사와르가 있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붙잡히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또 울며 불렀습니다.”(11.115~116) 이렇게 말은 주인에게 위기에 처해 있는 본국으로 재빨리 돌아갈 것을 종용한다.

<봄 에르텐>(12.63)에서 봄 에르텐이 괴물의 생명을 찾지 못하자 말에게 물어 괴물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알아낸다. 또 괴물을 함께 없앤 동료 하르 하찌르와 힘을 겨루다 그를 죽이려 하자 봄 에르텐의 지혜로운 붉은 간자말이 하르 하찌르를 죽이면 자기는 많은 동료들에게 달려가겠다고 하며 주인을 나무란다.(12.68)

이처럼 말은 주인보다 더 지혜로운 서사시의 진정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데, 말이 주인의 보호자, 수호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기원은 모두 동물 형태의 신들에 관한 신화와 관련이 있다(5.242)고 보기도 한다. 몽골의 구비문학에서 말 이외에 이렇게 인간화된 초능력적인 존재로 그려지는 동물은 거의 없다. 특별히 서사시나 마법의 이야기에서 말이 인간 이상의 마법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 그려지는 것은 초원을 배경으로 하는 기마문화의 구체적인 삶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몽골의 구비문학 장르 가운데 특별히 서사시의 나오는 영웅의 준마들은 주인과 인간의 말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며, 또 자신이 비하되거나 자신의 조언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처럼 감정의 변화를 보이거나 토라지는 태도, 주인에게 저항하는 모습 등을 보여준다.

<장가르>에서는 헝거르가 정혼을 하기 위해 타지로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거구의 경쟁자를 보고 주저를 하자, 그의 준마가 “열여덟에 정혼을 하겠다고 나와서 멀리서 보고만 돌아왔다는 오명을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주인님과 같은 대장부가 앞으로 전쟁에 나가 죽으면 성군 장가르 나라에 다시 주인님 같은 젊은이가 나오지 않을까 봐 그렇게 생명을 아끼며 주저하시는 건가요?”(11.45)라고 질책하며 목적인 바를 위해 목숨을 다해 싸울 것을 촉구한다.

그러자 분노가 치솟은 헝거르는 자기 말에게 내일 새벽까지 자신을 경쟁자에게 데려다 주지 않으면 엉덩이로 북의 덮개를 만들고, 갈비뼈로는 북채, 발굽으로는 쫓대를 만들어버리겠다고 으박지른다. 그러자 그의 준마가 화가 나, “내일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내 등에게 빠져나가 땅에 떨어진다고 해도 그건 주인님 책임입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 주인님을 태우고 가지 않을 거예요.”(11.45)라고 대꾸를 한다.

<게세르>에서도 게세르가 마법의 음식을 먹고 집에 가는 것을 잊고 있을 때 그의 지혜로운 밤색 말이 두고 온 고향에 적이 쳐들어 와서 왕비 어럭그마고야를 데리고 가고, 영웅들이 죽은 사실을 고하며 집에 돌아갈 것을 호소한다. 그리고는 마법의 음식을 주며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왕비 아르랑고아의 술수에 빠져 고향으로 가다가 되돌아오곤 하는 주인에게 화가 난 말은 주인이 오라는 명에 불복하는 저항적인 모습을 보여준다.(6.125~126)

이처럼 말은 사려 깊은 동물로 주인이 잘못 가는 길에서 되돌아서게 함으로써 주인을 참다운 영웅으로 끌어올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는 한편 인간적인 감정과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6. 목숨을 바치는 충직한 내조자

말은 남자에게 반려자 혹은 친구가 되는 동물로, 주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주인을 구하는 충성심을 보여준다. 이러한 말의 성격은 칭기스 칸의 네 명의 충성스런 용사인 버어르치, 모호래, 버러홀, 출롱 등을 ‘준마’의 의미를 갖는 ‘후릭’으로 표현한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4 명의 영웅을 ‘말’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은 그 당시 몽골인들의 말에 대한 미학적 인식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 ‘후릭’은 ‘위엄과 완전한 힘, 용맹성, 충직’(4.390) 등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몽골 서사시에서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의리 있는 말의 형상이 적지 않게 나온다. <알통 고르갈대>에서 주인공 알통 고르갈대가 원수인 비데르 하르 노용을 죽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홉 가지 색의 독이 끓는 바다를 만난다. 그때 알통 고르갈대의 준마는 주인을 바다 건너편으로 건네주고 자신은 죽고 만다.(15.46~47)

할리막 설화 <아름다운 바드마>에서는 왕비 바드마가 악마의 화신인 다른 왕비들의 속임으로 자식들과 함께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왕과 함께 전쟁에 갔던 바드마의 준마가 그녀에게 성급히 돌아와 자기를 죽이고 아들과 함께 자신의 가슴에 숨으라고 말한다. 바드마는 자신의 준마의 말대로 말을 죽이고 그 가슴에 묻혀 잠이 든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흰 게르의 양탄자 위에 자신이 누워 있었다. 게르 앞 초원에는 열한 그루의 과실이 맺힌 사과나무가 자라나 있었고, 황금 철책이 쳐진 우물이 있었다. 어디를 보아도 초원 가득이 말 떼가 풀을 뜯고 있었다.(23.123)

<마법의 시체> 이야기 35 장에서도 말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자기 몸을 도시로 변하게 하여, 주인들을 행복하게 살게 한다.(27.556) 말이 죽어서 자신의 몸으로 주인의 살터전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발상으로 이러한 이야기는 유목사회에서 말의 풍요 상징과 말의 무한한 은혜로움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설화 가운데 동물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이야기는 교훈적인 목적으로 지어진 허구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말의 경우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전설인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내려오는 이에 관련된 전설 중 하나를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신승겸은 고려 건국에 공훈을 세운 장군이였다. 고려 태조 왕권과 함께 후백제를 격퇴하기 위해 대구 팔공산 싸움에 참가했는데, 그 싸움에서 신승겸은 위기에 처한 왕권을 구하고 자신은 전사하고 만다. 신 장군이 죽자 그의 용마가 땅에 떨어진 장군의 목을 물고 그의 고향과 가까운 산에 나타나 3 일간 울며 굶어 죽었다는 전설이 있다.(42.227)

또 말에 관련된 의미층 전설을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보청에 사는 박 장군이 전사하자 그의 말이 주인의 시체를 물고 주인의 집까지 와서 소리를 지르며 피눈물을 흘리고 꺼꾸러져 죽는다. 말이 온 몸에 땀을 흘리며 쓰러져 죽은 것을 본 박

장군의 가족들은 말을 장군의 무덤 옆에 묻고 의마총이란 비석을 세워주었다고 한다.(29.18)

이와 유사한 말무덤에 관한 전설 또한 주인에게 의리를 지키는 충성된 말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임진왜란 때 황대중이라는 장사가 전사하자 그의 말이 주인을 신고 집으로 돌아와 주인의 장례가 끝날 때까지 먹는 것을 전폐하고 장례가 끝난 지 3 일 후에 죽는다. 충성된 말을 기리기 위해 장군의 묘소 근처 묻어 이를 말무덤이라고 불렀다(43.74~75)고 한다.

장수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말이 의리 있는 동물임을 말해주는 다른 한 전설을 보면, 예전에 경상도 성주의 한 역졸인 김계백은 5, 6 년 동안 역마를 돌보며 잘 길렀다. 하루는 김계백이 부상점에 말을 몰고 갔다가 밤에 술에 취해 돌아오다가 중간에서 호랑이를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한다. 이때 그가 돌보았던 말이 자신을 위해 호랑이와 싸우다가 죽고 만다. 역인들이 그 말을 묻어 주고 비석을 세워 '의마총'이라 했다.(30.125)

자신의 주인을 지키기 위해 호랑이와 싸우다 죽은 말이나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다 죽은 말의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로 말의 충성스러움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영웅의 준마 가운데 여덟 개의 다리를 가진 말이 종종 등장하는데, 몽골의 서사시 <에링센 해르트 하르 후혈>에서는 팔 년 동안 새끼를 낳지 않은 여덟 가지 마법적인 힘을 가진 다리가 여덟 개 달린 얼룩말(15.125)이 나온다.

마법의 이야기인 <금과 은으로 된 복사뿔>에서 주인공 소년 차가아가 복사뿔을 찾으러 갈 때 다리가 여덟 개인 얼룩말을 타고 간다. 괴물 노파가 그 뒤를 추격하면서 말의 여덟 개 다리를 다 잘라버린다. 그러자 말은 몸으로 기어 도망친다. 몸마저 두 동강이 났을 때 가슴으로 기고, 가슴도 베어지자 말은 머리로 움직여 간다. 마침내 말은 머리를 베어버리자 죽고 만다.(25.84)

서사시 혹은 마법의 이야기에 나오는 다리 여덟 개 달린 말은 전설적인 마법의 동물로, 그 상징적 의미는 '균형의 완전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7 이 창조의 완전수라면 8 은 '재생과 회복, 지복'의 상징적인 수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8 수를 마법의 수로 보았다. 또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오딘도 역시 8 개 다리를 가진 암말을 가지고 있었는데,(44.172) 여기서 8 개 다리는 '초능력적인 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불교에서 8 수는 '완성된 상태', '모든 가능성'을 나타내며(44.246) 여덟 가지 제물, 팔계, 팔각 탐 등을 상징하는 등 8 수는 불교와 뿔 수 없는 관련을 갖는다. 몽골의 서사시나 마법의 이야기에는 불교적인 관념이 상당히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의 형상도 불교적인 영향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여덟 개 다리를 가진 말이 반드시 불교적인 숫자 상징과 결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동양에서 예로부터 8 수를 마법의 수로 생각했던 것과 함께 다리의 수를 두 배로 증가시킴으로써 달리는 힘을 무한대로 배가시키는 초능력적인 말의 형상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할리막의 설화 <만 와르 왕>에서 만 와르 왕은 수행자 승려가 준 여덟 개 날개가 달린 황색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27.478) 여기서 여덟 개 날개는 여덟 개 다리와 마찬가지로 '마법적인 힘'을 상징한다.

일반적으로 몽골에서는 말을 남자의 좋은 반려이자 훌륭한 벗으로 보며, 주인을 위해 목숨을 다하는 충직한 동물로 비유되어 속담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몽골인들은 자신의 준마를 "수정 보석"이라고 귀하게 여기고, 남자와 타는 말을 대등하게 보는 고대 전통이 있다.(8.172) 말은 이렇게 남성을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말의 자식이나 술의 자식이나?"라고 하면서 아기의 성을 묻는 풍습도 있다.(8.135)

7. 변신

몽골 서사시의 주인공들은 몸을 숨기고 적진이나 다른 지역으로 들어갈 때 대개 자신은 머리가 듬성하게 난 코흘리개 시골뜨기 아이로, 타는 말은 옴이 있는 회색(15.81) 혹은 검은색(15.70) 두 살배기 말로 변신케 하는 경우가 많다.

<장가르>에서 헝거르가 타 지역으로 들어갈 때 자신의 준마 어철 후흐 할증을 두 살배기 어린 말로 만들고, 자신은 윗머리를 굽으면 열 마리 벌레가 떨어지고 옆머리를 굽으면 다섯 마리 벌레가 떨어질 정도로 더럽고 듬성듬성한 머리를 가진 아이로 변신해 타지역의 궁으로 들어간다.(11.54)

변신의 유형은 다양해서 다른 이본에서는 장가르 편의 용사인 밍양이 자신의 말 알통 샤룩을 ‘복사빠’로 만들고, 자신은 여덟 개 다리가 달린 거미로 변신해 투르크 왕의 궁으로 들어간다.(26.219) 할하 서사시인 <열세 살의 알타이 슴베르>(15.63)에서는 말을 어깨에 메는 ‘자루’로 만들고 주인공 자신은 코흘리개 아이로 변신한다.

이렇게 영웅이 누추한 코흘리개 시골뜨기로 변신하는 것은 주인공들이 민중을 대변하는 존재(16.23)로 형상화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이러한 변신은 자신의 정체와 힘을 감추고 적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과 함께 놀라운 힘을 가진 영웅적 존재는 자신의 힘을 발휘해야 할 상황이 되기까지 자신의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서사시에 나오는 말들은 주인에 의해 변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스스로 변신할 수 있는 초능력적인 힘을 지니기도 한다.

몽골 서사시에 “에젠 텡게르 왕의 열 명의 공주들 가운데 막내인 알통 공주가 타는 말은 99 가지 변신을 할 수 있다.”(18.95)고 하여 말의 변신의 마법적인 능력을 완전수이며 하늘의 수인 9, 9 로 묘사하고 있다. <에링 쎄 헤르트 하르 후혈>에서는 반동인물인 쇼항 올랑 바타르가 주인공 하르 후혈을 땅에 파묻고 가자 그의 용감한 준마가 세 여인에게 달려가서 주인을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다. 이때 세 여인이 백조로 변하자, 말은 한 번 땅에 굴러 ‘종달새’로 변해 백조의 날개 위에 앉아 함께 날아간다.(15.132)

<알통 고르갈대>에서 주인공의 두 마리 은회색 형제 말들도 이와 같은 변신 능력으로 주인을 돕는다. 반동인물인 비테르 하르 노용이 쳐들어와 두 마리 말을 잡아가려 하자, 형인 버르 말은 ‘풀’로 변해 날아온다.(15.38) 또 벼락을 피해 ‘말똥’이 되어 들쥐 구멍으로 굴러 들어가기도 한다.(15.48) 반동인물의 말들도 변신하여 자신의 주인을 돕는데, 비테르 하르 노용의 갈색 말은 ‘붉은 바위’로 변해 주인공 알통 고르갈대가 가는 길을 막는다.(15.46)

<고르봉 나스테 고능 올랑 바타르>라는 신이담에서는 에르테닝 칭이 그의 원수의 말을 쫓아가 그 모가지들 물자 적의 말은 ‘종달새’가 되어 도망친다. 그러자 말은 매가 되어 쫓고, 다시 종달새가 물고기가 되어 바다로 들어가자 거북이가 되어 그 뒤를 쫓는다. 물고기가 다시 처그척새가 되어 구멍으로 들어가자, 말은 작은 새가 되어 그 뒤를 쫓아가 그것을 잡아 죽여 태우고 숯가루를 바람에 날려버린다.(25.169)

그밖에 말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해 천상, 지상, 지하의 삼계를 오고 가는 마법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나타난다. 이렇게 주인공이 자신의 말을 변화시키거나 스스로 자유자재로 변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되는 것은 고대 왕들이 대개 샤만이었던 점과 관련시켜 볼 수 있다. 또 말이 스스로 변신하는 존재로 묘사되는 것 역시 샤만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고대에는 말을 ‘신’으로 인식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이 자유로운 변신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 것은 말을 신비한 동물, 하늘의 동물로 존승해 왔던 고대인들의 신화적 상상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8. 결론

말은 유목문화에서 뗄 수 없이 중요한 존재로 고대로 올라갈수록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컸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몽골의 구비문학에 묘사되고 있는 말의 형상은 두 나라 생활 방식의 차이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고대인들의 생활상과 관습,

사유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구비문학 속에 영웅과 관련된 말의 형상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과 몽골 두 나라 민족의 말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았다.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말은 하늘 동물이며, 하늘을 나는 말은 주로 백색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백색은 태양빛과 하늘의 상징성을 갖는 신성한 색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는 몽골과 한국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아주 오랜 신화시대 말을 천마(天馬), 신마(神馬)로 인식했던 동일한 관념을 보여준다.

둘째, 하늘을 나는 말들은 주로 하늘에서 점지한 탁월한 존재인 영웅이나 장수의 탈것으로 등장하며, 장수 내지 영웅 탄생과 함께 등장한다. 또 영웅을 태우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기도 한다. 하늘을 나는 말에 대한 이해는 말이 신화시대 신들의 탈것이라는 데서 생겨난 관념으로, 후에 왕이나 탁월한 능력을 지닌 영웅을 천손 또는 하늘이 점지한 특별한 존재로 관념하면서 천마를 영웅과 관련시키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는 말은 영웅의 탈것의 기본 조건으로 나타난다.

넷째, 말은 주인을 위해 헌신적인 내조자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주인을 보호하는 수호자로 묘사된다.

이와 달리 차이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몽골에서 하늘을 나는 말은 백마뿐 아니라 은회색, 청마, 밤색말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은회색 말은 일반적으로 백마와 같은 계열로 볼 수 있으며, 청마는 ‘영원한 하늘’을 상징하는 하늘의 색 상징성을 지닌다.

둘째, 하늘을 나는 준마는 장수의 탈것으로 인식되지만, 한국의 경우 말보다 용마가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은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용문화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몽골의 경우 한국과 달리 말은 의인화되어 묘사되며 인간의 말을 알며, 주인공보다 더 영리하고 현명한 존재로 그려진다. 이럴 때 말은 예지자, 조언자, 조력자, 구원자, 훈계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이것은 고대 동물 신 숭배와 초원을 배경으로 늘 말과 더불어 살며 말과 교감하는 유목 내지 기마 생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몽골 영웅서사시에 등장하는 말들은 주인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변신을 한다. 보통 비루먹은 어린말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에 따라 말똥, 복사뼈, 풀, 물고기, 새, 바위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을 하여 주인을 돕는다. 말이 스스로 변신하는 것은 사면적 영웅의 초능력적인 힘이 전이되었거나 고대에는 말을 신으로 인식했던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섯째, 몽골의 경우 말 자체를 형상화하거나 그 행동을 묘사할 때 극대 과장법을 사용해 말의 놀라운 모습과 능력을 드러낸다. 한국에는 이러한 과장법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한국에 비해 몽골 구비문학에 말에 대한 형상성이 상당히 크게 발달해 있으며, 이것은 기본적으로 생활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비문학을 통해 볼 때 몽골의 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독특하여 말의 형상성은 앞으로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요하는 부분이다.

참고 문헌

<몽골 자료>

1. Арьяасүрэн Ч, 『Монгол ардын үлгэрүүд』, УБ, 2001.
2. Бадамхатан С, 『БНМАУ-ын угсаатны зүй』 1, ШУА түүхийн хүрээлэн, 1987.
3. Баттогтох Д, 『Ойрад Монгол аман зохиолын дээжис』, УБ, 1994.
4. Баяр Я, 『Монгол зан үйлийн судлал』, өвөр монгол, 1999.
5. Гаадамба Ш, Сампилдэндэв Х, Цэрэнсодном Д, 『Монгол ардын аман зохиол』, УБ, 1988.
6. Дамдинсүрэн Ц, 『Гэсэр』, ШУА хэл зохиолын хүрээлэн, 1986.
7. Дамдинсүрэн Ц, 『Монгол уран зохиолын дээж зуун билиг оршив』 2, 2001.
8. Долгорсүрэн Ж, 『Аман соёлын арга билгийн шүтэлцээ』, УБ, 2000.
9. Дулам С, 『Өнгөний бэлгэдэл зүй』, УБ, 2000.
10. Ёндон Д, 『Монголын уран зохиолын дээжис』, УБ, 1995.
11. 『Жангар』, Өвөр монгол, 1958.
12. Катуу Б, 『Баяд ардын тууль』, УБ, 2001.
13. Катуу Б, 『Бум эрдэнэ』, УБ, 1985.
14. Катуу Б, 『Монгол туулийн дүрийн тогтолцоо』, УБ, 2004.
15. Нарантуяа Р, 『Халх ардын тууль』, УБ, 1991.
16. Оюунбадрах Д, 『Монголын хүүхэдийн уран зохиол』, УБ, 1987.
17. Өвөр монголын их сургууль жич монгол хэл утга зохиолын салбар,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түүвэр』, Өвөр монгол, 1997.
18. Өлзийхутаг Ц, 『Монгол ардын тууль』 3, УБ, 1982.
19. Пунцагдорж Б, 『Алтай сайхан нутгийн минь ардын ухааны эрдэнэсийн хэлхээ』, УБ, 1999.
20. Сүхбаатар Г, 『Монголчуудын эртний өвөг』, УБ, 1980.
21. Цагаан Д, 『Чулуун соёл』, Өвөр монгол, 1993.
22. Цолоо Ж, 『Монгол ардын баатарлаг тууль』, УБ, 1982.
23. Цолоо Ж, Далхжав Х орчуулсон, 『Халимаг ардын үлгэрүүд』, УБ, 1983.
24. Цэвэл Я, 『Монгол хэлний товч тайлбар толь』, УБ, 1966.
25. Цэрэнсодном Д, 『Монгол ардын домог үлгэр』, УБ, 1989.
26. 『Аман зохиол судлал』 18 боть, ШУА хэл зохиолын хүрээлэн, 1988.
27. 『Монголын уран зохиолын тойм』 2, ШУА хэл зохиолын хүрээлэн, 1977.

<한국 자료>

28. 김부식, 『삼국사기』, 이병도 역주, 을유문화사, 1997.
29. 김선풍, “한국 민속 문학에 나타난 말”, 『아시아 각국의 말 문화 및 동물민속』, 국제아 시아민속학회, 1999.
30.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7, 건대출판부, 2000.
31.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의 구조와 의미”, 『한국설화문학연구』 하, 단국대출판부, 1998.
32.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 집문당, 1993.
33. 오흥석, 『땅이름 나라얼굴』, 고려원미디어, 1995.
34. 윤영·조정현·최웅범 편, 『조선민간전설』, 한국문화사, 1994.
35. 이규보·이승휴, 『동명왕편·제왕운기』 2, 을유문화사, 1974.

36. 일연, 『삼국유사』, 김봉은 역, 교문사, 1993.
37. 임동권, 최운식 외, 『한국의 마 민속』, 집문당, 1999.
38. 임철재, 『한국구전설화』 1, 평민사, 1993.
39. 장덕순, 조동일 외, 『구비문학개론』, 일조각, 1993.
40. 전북대인문연구소, 『동북아 샤머니즘 문화』, 소명출판사, 2000.
41. 최래옥, “아기장사 전설의 연구”, 『설화』, 교문사, 1989.
42. 표인주, “말 모티브 당신화의 신화적 의미와 말의 의미”, 『민속학연구』 5 호, 민속박물관, 1998.
43. 표인주, “민속문화에 나타난 말의 의미”, 『한국의 마 민속』, 집문당, 1999.
44. Cooper J.C,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raditional symbols』, 이윤기 역, 까치, 2000.